

‘사우디 정보 산업 시장의 교두보를 구축’

—사우디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파견—

이단형

1. 개요

우리 연구소는 1981년 5월부터 사우디 국립과학기술연구소(SANCST)와 S/W 기술인력지원 계약을 맺고, 1단계로 4명의 연구인력(신수용, 성시용, 조영화, 신석규)을 파견하였으며, 추후 고재국, 이상덕, 염상기, 노영주, 유진영 등의 연구인력이 추가 및 교체 파견되었다. 우리 연구소가 사우디 최고의 연구소에서 S/W 개발 기능을 맡음으로써 사우디 정보산업시장 확보를 위한 교두보의 구축과 아울러, 중동지역 국가행정업무 전산화에 대한 기술 진출의 시발점이 성기수 소장님의 결단으로 마련되었다.

2. 배경

우리 연구소 S/W 기술인력의 사우디 진출은 우리 정부의 사우디 의료지원사업 입찰참여에 그 배경이 있다. 사우디 정부로부터 1980년 6월 23일 사우디 친위군 의료시설운영에 관한 입찰 참여 의사를 타진받은 우리 정부는 국방부를 주관부처로 정하고, 8개 부처에서 차출된 조사단(단장 : 당시 박찬금 방산차관보)을 편성하여, 동년 6월 27일부터 2주일 동안 현지답사를 실시하였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김봉일 실장이 이 조사단에 참여하였다. 동년 7월 21일에는

사우디 의료지원사업 교섭단(단장 : 당시 최종례 장군)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연구소는 의료 S/W 개발부문에 대해 교섭준비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처음 조사단에 참여했던 부처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더니 나중에는 교섭단에 국방부(최종례 장군, 김상웅 장군, 김한중 소령), SERI(이단형 선임연구원), 동일교역(박원호 부장)만 남게 되어, 사우디에서 교섭할 프로포절을 세 기관이 전담하게 되었으며, 우리 연구소가 사우디 정부에 프리젠테이션 할 자료까지 준비하게 되었다. 1980년 10월 8일부터는 3주일 동안의 일정으로 현지에서 우리나라 교섭단의 협상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영국을 포함해서 16개국이나 응찰해 왔다. 영국의 경우, 양질의 의료기술에다, 의사 월급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되고, 의사소통도 우리보다 원활한 강점이 있는 등 입찰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승산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도, 현지 협상기간 동안 우리나라 의료수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다른 분야에서의 가능성을 찾아본 결과, SANCST와의 협상이 잘 진전되어 협약서 조인이 가능하였다.

3.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일

사우디 정부 의료지원사업 입찰협상이 끝날 무렵인 1980년 10월 하순 강현욱 전장관(당시 주 사우디 재무관)과 함께 리야드(사우디 수도)에 있는 SANCST를 방문하여 Mr. Mazi(당시 SANCST 전산담당 디렉터)를 만났다. 당시 SANCST는 이미 미국의 Informatics사와 S/W 및 인력지원에 대해 거의 결정단계에 와 있어서, 우리의 협력제외에 별로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우디에 3주일간이나 출장을 나왔다가 맨손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아서, 다음날 다시 전화로 접촉을 해보았다. '사우디가 현재는 기름 판 돈이 많지만, 기름엔 한계가 있다. 이에 대비해서 사우디도 기술자립이 필요하다. 한국이 현재 사우디보다 돈은 적어도, 전산기술은 많이 앞서 있다. 미국의 최첨단 전산기술을 비싼 값에 사다 놓기만 하는 것보다는, 사우디 수준에 맞춰 전산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기술전수를 해 줄 수 있는 한국을 택하라.'는 취지로 설득을 해서, 한번 더 면담을 하는 것으로 Mr. Mazi와

약속이 됐다.

그러나 약속 당일 SANCST를 방문했더니 철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수소문을 해보니 모두 라마단 휴가를 떠났던 것이다. 라마단 휴가기간 동안 우리나라 대사관이 위치한 쟈다(리야드에서 2000km 거리임)로 가서 의료지원사업 입찰협상에 대한 마무리 방안에 대해 우리 대사관 직원들과 정리를 끝내니 출장기간도 끝났고, 비자기간도 종료되었다. 출장기간 연장은 성 박사님 허락을 받았으나, 비자기간 연장은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여러모로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못해, 비자도 없는 상황에서 리야드로 다시 돌아가 사우디 정부 의료협상 책임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였다. SANCST를 다시 접촉해 보았더니, 그 정도의 열의와 끈기가 있다면 자기네 일을 잘 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시 SANCST 소장으로 계시던 Dr. Obeid를 만나게 해주었다. Dr. Obeid와 기본 사항에 대해 구두합의를 한 후, Mr. Mazi와 세부사항에 대하여 조정하여, 우리 연구소 연구인력 파견에 대한 합의를 조인하게 되었다. 당시 우리 연구인력 파견 조건은 미국인 전문가 파견 조건과 같은 수준으로 매우 파격적이었다.

4. 결 언

이 프로젝트는 성기수 박사께서 늘 부하직원들을 신뢰하시고, 많은 재량을 위임해 주시는 경영스타일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많은 이벤트 중 하나이다. 본 프로젝트는 우리 연구소 여러 연구원들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중동지역에 우리 연구소의 능력이 많이 홍보되어, 사우디의 Dallah 그룹(사우디에서 가장 큰 기업) 및 쿠웨이트의 Anani 사 등에서 우리 연구소와 합작투자를 제안해 오기도 하였다.